

## #001화 관심이 필요해

“엄마! 저 사람 좀 봐! 고양이들이 잔뜩 따라다녀!”

“어머나 정말이네? 저렇게 많은 고양이는 처음 보는 것 같구나.”

냐옹~ 냐옹~

“하아… 또 시작이네.”

냐앙~ 냥!

“제발… 나 좀 내버려 둬라…”

“에… 에…….”

냐오오옹~~!!

“에취!!!”

오늘도 참 빌어먹을 아침이군.

내 이름은 송민우, 평범한 27살 회사원이다.

아니지, 이젠 평범하진 않나?

잠잠하기만 하던 내 일상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에게 소원을 빌고 난 후 완전히 뒤바뀌었다.

물론…. 내가 원하던 방향은 전혀 아니었지만.

우연히 찾게 된 별똥별 스팟.

평소 존재감이 없는 것이 콤플렉스였던 나는 쏘살같이 떨어지는 별똥별에게 간절히 빌었다.

‘제발… 나에게 관심 좀!!!’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관심을 주는 게 사람이 아니었을 뿐.

\*\*\*

헉헉!! 월월월!!!

“아이고 애가 요즘 아침마다 왜

이런담? 총각, 뭐 간식이라도 가지고 다녀?”

나는 헛기침을 하며 아주머니를 돌아보았다.

“하하…。 참 이상하네요. 어제 먹은 삼겹살 냄새라도 맡았나?”

“고기이~?! 총각이 지금 삼겹살 먹을 때야!? 어여 밀린 월세나 내!”

음, 월세 밀린 사람은 고기도 못 먹냐고요….

“죄송해요! 다음 주까진 꼭 내겠  
습니다!”

월월!! 헉!

나는 아주머니의 시끄러운 잔소리와 달라붙는 뽀삐를 뒤로 하고 서둘러 출근길에 나섰다.

\*\*\*

“송 사원, 이것 좀 부탁해요.”

“아, 네.”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친한 직장 동료는 제로.

동료들과는 사무적인 대화만이 오갈 뿐이었다.

별똥별님, 왜 저에게 사람들의 관심 대신 동물들의 관심을…….

잠시 신세 한탄을 하던 그때, 옆자리 대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거 들었어? OO 부서에 양 팀장이 얼마 전에 퇴사했다더군.”

“뭐? 그 양반 얼마 뒤 승진할 거라고 평평거리더니만?”

“글쎄 요즘 유행하는 그 게임 있잖아, ‘스텔라 유니온!’”

“아 알지,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그 가상현실게임! 근데 그 게임이 왜?”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양 팀장이 거기서 대박 냈다지 뭐야?”

“응? 영웅이나 전설 템이라도 먹

있데? 하긴, 희귀 아이템만 해도 한 달은 먹고살 걱정은 없다던데.”

돈…?

고작 게임 속 아이템에 불과한데, 큰돈이 된다고?

나는 대화에 더욱 집중했다.

“그렇다니까! 거기서 한 몫 거하게 챙겼는지 바로 회사 때려치웠다 하더라고.”

“부럽네, 부러워.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잖아.”

게임을 하면서 돈까지 벌다니,

‘나도 한 땀 게임 좀 했는데….’

과거,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내가  
그나마 자신 있던 것은 게임이었  
다.

그마저도 팀플 게임은 못하고 솔  
렘만 해서 친구는커녕 아싸력만 높  
아져 갔지만.

아무튼,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

다니.

‘나도 한 번 해볼까…?’

저절로 관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다.

\*\*\*

다음 날, 나는 비장한 모습으로 가상현실게임기 대여 룸 앞에 도착했다.

비둘기들과 참새들을 어깨와 머리에 잔뜩 태운 채로.

나는 머리에 올라탄 새들을 손짓으로 날려 보낸 뒤, 카운터에서 가상현실게임기의 대여 비용을 확인했다.

“1시간에… 만원?? 일반 PC방의 몇 배야 이게?”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대여 비용에

나는 갑작스레 망설여졌다.

‘이 돈이면 삼겹살을 배불리 까진  
아니어도 맛이라도 볼 수 있는  
데….’

이 게임… 시작해도 괜찮은 걸까?  
어쩌면 대여비만 날려 먹고 지금  
보다 더 궁핍해질지도….

그 순간.

“영웅급 아이템이다아아-!!”

한 남자가 캡슐에서 벌떡 일어나  
며 소리쳤다.

“나도 이제 부자야!”

남자는 거의 춤을 추다시피 대여  
룸을 뛰쳐나갔다. 덕분에 나는 결  
심할 수 있었다.

‘랭커만 될 수 있다면… 이 지긋  
지긋한 가난과도 안녕이다!’

나는 4만원을 넣곤 시간이 1분이  
라도 낭비될까 서둘러 캡슐에 누웠  
다.

위이이잉…….

‘영혼이 통째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 이게 가상현실인가?’

기계에 익숙해져 갈 때쯤, 묘한 감각 뒤로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스템 동기화]

[1…2…3…완료.]

[새로운 플레이어 민우님을 환영합니다.]

[캐릭터를 생성합니다. 캐릭터는 민우님의 실제 신체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여 능력치를 분배합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특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 드디어 캐릭터 생성인가? 이게 뭐라고 긴장되네…….’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 시스템이라는 존재가 나도 모르는 나의 재능을 찾

아내 주는 그런 드라마틱한 결과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능력치 분배가 완료되었습니다.]

.

.

.

[힘:6] [민첩:4] [체력:6] [마력:5]

‘와…… 어떻게 게임에서까지 이  
렇게 평범할 수가 있지?’

시스템이 분석한 송민우는 평범,  
그 자체의 인간이었다. 어디 하나  
특출 난 곳 없는.

‘하… 뭘 기대한 거냐. 나도 참.’

그렇게 속으로 한숨을 쉬던 순간,  
아직 끝나지 않은 듯 시스템 알림  
창이 하나 더 띄워졌다.

[특성 발견!]

[몬스터 친화력 Lv1]이 추가됩니  
다!]

응? 몬스터 친화력? 그게 뭐….

아, 설마.

‘동물… 친화력 말하는 건가?’

근데 이걸 대체 어디에 써먹으라는… 아니다, 이거라도 생긴 게 어디야.

이제 남은 건 외형과 닉네임인가?

[캐릭터의 외형은 현실에서의 모습에서 최대 10%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눈동자와 머리카락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별다른 조절 없이 눈동자 색만을 푸른색으로 바꿨다.

‘오, 눈 색만 바꿨는데도 꽤 다른 사람 같잖아?’

마지막은 캐릭터 생성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닉네임.

‘어디 보자… 사람들의 이목을 잘

끝 만한 이름이….’

‘…관종?’

에이, 이건 좀 그런가?

[닉네임을 ‘관종’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아니요???

[닉네임 ‘관종’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니다.]

…설마 설정된 거야?

관종으로?

‘……’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속마음으로 결정해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억울해!!’

[플레이어 관종 님, 캐릭터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접속하시겠습니까?]

아하… 하하하…….

시작부터 뭔가 단단히 꼬인 듯한  
느낌인데… 괜찮겠지?

‘예….’

[아름다운 별의 세상, 스텔라 유니  
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썸썸한 내 기분과는 상반되는 청  
명하고 눈부신 빛줄기가 주변을 휘  
감았다.

\*\*\*

휘이잉…….

“으음…….”

꺾가에 퍼지는 싱그러운 바람 소  
리, 그 외에 다양한 소음들이 들려  
왔다.

“여기가… 스텔라 유니온?”

천천히 눈을 뜨자 생전 처음 보는  
광활한 풍경과 나와 같은 초보자로  
보이는 여러 유저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향한 주변 사  
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헐 저 유저 닉네임 좀 봐, 어떻  
게 닉네임이 ‘관종’….”

“대박, 안 부끄러운가 봐…”

‘…부끄러운데요? 지금 게임 시작 하자마자 너무너무 끄고 싶은데요.’

처음 느껴보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

‘그토록 바라던 관심을 이런 식으로 얻게 될 줄이야….’

오히려 잘 된 건가….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무덤

덤하게 받아들이며 튜토리얼 NPC  
를 찾아갔다.

‘저 사람인가?’

짙은 눈썹과 날렵한 수염을 가지  
고 있는 그는 척 보기에도 NPC 같  
은 외형을 가지고 있었다.

“어서 오게나. 이름이… ‘관종’?  
허허, 특이한 이름이로군. 관종 군,  
이곳은 초보자들의 마을, 에리즈  
(Arise)이네.”

역시…내 닉네임을 NPC한테 들으니까 뭔가 좀 그렇네….

“나는 이곳의 신입들을 훈련 시키는 교관 워든이라고 하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워든 씨”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 나는 ‘스텔라 유니온’에 대해 조금 조사했다. 그중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바로, NPC들의 호감을 쌓는 것!

호감을 쌓기 위해선?

뭐든 성실하게! 친절하게! 감사 표현!

이 세 가지면 누군들 호감을 쌓지 못할까.

‘물론 현실에선 별 소용없었지만….’

“음! 이번 신입은 꽤나 씩씩하군, 그럼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하지.”

띠링!

눈앞에 새로운 퀘스트 창이 떠올랐다.

[기본 퀘스트: 슬라임을 처치하여 나온 슬라임 점액을 모아 위든에게 가져다주기.]

슬라임 점액: 0/5

등급: 기본

보상: [초보자용] 가죽 갑옷, 500 골드

기한: 무기한

실패 시 페널티: 없음

설명: 진정한 모험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 슬라임을 잡아보자!

\*슬라임 처치 시 일정 확률로 슬라임 점액이 드랍 됩니다.

‘역시 이런 게임의 시작은 슬라임이지. 좋아 가볍게 가보자고!’

나는 위든에게서 초보자용 목검을 받아 들곤 사냥터로 향했다.

[슬라임 사냥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냥터에서는 이미 여러 유저가  
슬라임을 사냥하고 있었다.

“에이, 또 꺽이야? 첫 번째 퀘스  
트인데 뭐 이리 드랍률이 낮아?”

아무래도 쉽지 않은가 보다.

그리고…….

처음 봐보는 슬라임의 첫인상?

솔직히 당황했다.

큐우… 큐!!!

‘뭐, 뭐야 생각보다… 귀엽잖아?’

굉장히 무해해 보이고 흐물거리는  
몸체, 자꾸만 내는 귀여운 효과음.

‘뭔가… 몬스터라지만 죽이기 좀  
그렇네.’

“하지만 퀘스트를 깨기 위해선…  
미안하다!”

애써 마음을 억누르며 검으로 슬  
라임을 내리치려는 순간,

[슬라임 발견!]

[몬스터 친화력 Lv1의 패시브가  
발동됩니다.]

응? 이게 발동되면 뭐 어떻게 되  
는...

“.....?”

큐큐! 큐우~~!

[슬라임이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

니다!]

‘…잠깐, 지금 슬라임이 나한테 호감을 느끼는 거야?’

큐우…!

[슬라임이 당신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헐.”

몬스터 친화력이란 게 이런 거였

어?

‘나를 따르고 싶다니… 그럼 혹시  
뭘 부탁할 수도 있는 건가?’

“저기… 너, 내 말 알아들을 수  
있어?”

큐큐우~

(응응! 알아들을 수 있어!)

[몬스터 친화력 Lv1]의 [패시브]  
효과로 몬스터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박!! 완전 사기 패시브잖아?’

아무리 초기 특성 패시브라지만  
몬스터와 대화라니?

‘에이, 나 말고도 이런 사람들 또  
있겠지.’

“그나저나 잠깐…. 너 혹시, 내 부  
탁 좀 들어줄 수 있니?”

큐우우! 큐큐!

(물론이지! 너, 좋은 인간!)

슬라임은 신이 난 듯이 점프를 뛰며 내 주위를 빙글 돌았다.

‘이게 몬스터인지 강아지인지 원, 아무튼, 한 번 시도해 보자.’

잠시 의문을 가짐과 동시에 나는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 #002화

“음… 네 슬라임 점액을 조금 나눠 줄 수 있을까?”

‘이게 될까, 과연?’

큐우, 큐!

(그 정도야 문제없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기세등등하게 대답한 슬라임은 갑작스레 무언가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큐우에엑…….

굉장히 끈적끈적해 보이는 액체 덩어리가 하나둘, 바닥에 떨어졌다.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도해 본 건데 정말 될 줄이야.

나는 슬라임이 뺏어낸 점액들을  
하나씩 인벤토리에 주워 담았다.

[슬라임 점액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슬라임 점액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

.

.

“...이게 다 몇 개야?”

무려 13개나 되는 점액들,

‘하나의 슬라임한테서 이렇게나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였어?’

이정도면 퀘스트를 깨고도 8개나 남는 양 이었다.

열심히 점액을 뺐은 슬라임은 지치지도 않는지 금세 기운을 차리곤 나에게로 폴짝 다가왔다.

큐큐!!

(이정도야 별거 아니지!)

‘요 귀염둥이 녀석!’

“고맙다!!”

슬라임은 자신 또한 기분이 좋아졌는지, 아까보다 훨씬 더 활기차 보였다.

이렇게나 빨리 퀘스트를 깬 줄이야… 현실에서의 저주가 여기에서라도 도움이 되는구나.

“흐흐흐…”

그때, 근처에서 사냥 중이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오빠, 저 사람 좀 봐!”

“응? 어디?”

“저기! 닉네임 '관종'! 저 사람, 아까부터 슬라임이랑 무슨 대화 같은 걸 하는 것 같아.”

“푸핫, 그게 무슨 소리야? 딱 봐도 닉네임처럼 컨셉질 하는 거구만.”

“흠... 그런가? 역시 이상한 사람인 가보네.”

하하… 컨셉질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현실이나 게임 세상이나 어쩐지 점점 내가 원하던 방향이랑 멀어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 이겠지?

“남들 눈엔 이상해 보일만 해…….”

큐우? 큐우우…….

(괜찮나 인간?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슬라임은 내가 갑자기 우울해진 것을 알아채기라도 한 건지 내 곁에 찰싹 붙어 날 위로해 주기 시작했다.

“흡, 간지러워!”

큐우~!

‘휴, 정말 정들기 전에 슬슬 가야 겠어.’

아쉽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할 때

였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험악하게 생긴 한 유저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거 형씨, 그 슬라임 안 잡을 거면 내가 잡아도 되지?”

“예? 아니 그….”

“나 점액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걸랑? 형씨는 다 깬 것 같은데 양보 좀 해주지?”

그렇게 말한 남자는 내 뒤에 숨어 있는 슬라임을 바라보며 씨익 웃었다.

큐우우…….

아, 씨….

‘지금 내가 가버리면 이 슬라임은 저 남자의 손에 베어지겠지….’

물론 이 게임이 평범한 RPG 게임이었다면 나는 별생각 없이 그에게

슬라임을 양보해주었을 것이다. 이 슬라임은 그저 한낱 잡몹일 뿐이니까.

하지만….

이대로 이 슬라임을 모른 척 지나가기엔 짧은 시간이나마 쌓인 정을 도저히 무시하기 어려웠다.

나는 험상궂은 표정의 남자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음, 죄송하지만 이 슬라임은 저의….”

“엉? 너의?”

생각하자, 생각하는 거야.

이 슬라임은 나의…!

“그… 펫 인데요?”

큐우??!

(인간…?!)

“푸…푸하하!!”

내가 뺏은 말이지만 아무리 봐도  
억지다….

“이 슬라임이 니 펫이라고? 크  
크… 이봐 형씨, 양보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면 될 거 아냐?”

“괜히 이상한 말장난이나 하고 말  
이야… 기분 잡치게.”

아, 큰일 났다.

남자는 아까보다 더 무서운 표정  
을 지으며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오  
기 시작했다.

“뭐? 펫? 참나…”

초보자용 목검을 고쳐 쥐며 다가오는 남자를 보며, 나는 직감적으로 남자가 슬라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라면 결국…….

그때, 눈앞에 새로운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슬라임이 당신에게 큰 감동을 느낍니다! 호감도 최대치! 슬라임이 당신의 펫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락 / 거절]

“……?”

수...수락!

‘너무 갑작스러워서 일단 수락을 누르긴 했는데 이게 대체 뭘...?’

[슬라임이 당신의 펫이 되었습니다! 펫이 된 슬라임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함께 싸울 수 있으며, 성장이 가능합니다! 펫이 된 몬스터는 1시간 간격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소환된 몬스터는 10분 뒤 자동으로 소환이 해제되며, 시동어 ‘소환 해제’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뭐야, 정말 할 수 있는 거였어?!

이것도 설마, ‘몬스터 친화력’ 스킬의 능력…?

아무튼, 이거라면…!

“소환 해제!”

큐우우웅~

슬라임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다.

“뭐… 뭐야! 여기 있던 슬라임 어디 갔어?!”

“보셨죠? 제 펫 맞다니까 그러네.”

“…말도 안 돼! 방금 시작한 뉴비가 그딴 능력이 어디 있어?”

“놀랍게도 말이 되는데요. 그럼 더 볼 일 없으시죠? 남은 사냥 파티팅 하세요.”

나는 허망한 표정의 남자를 뒤로 하고 서둘러 사냥터를 빠져나왔다.

‘휴우… 잘 넘어갔군.’

…그나저나 ‘몬스터 친화력’, 대체 무슨 패시브 인 거지?

나는 별 볼 일 없기에 게임을 시작하고 한 번도 확인해보지 않은 내 정보를 눌러 스킬을 확인했다.

[보유 스킬]

SS급 몬스터 친화력 Lv1

\*상세정보

설명: 현실에서 놀라우리만큼 동물들에게 사랑을 받는 당신! 게임

속에서도 당신은 몬스터들의 호감과 애정을 잔뜩 받게 됩니다.

패시브 스킬: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몬스터들에게 호감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몬스터들의 언어 이해 능력이 대폭 상승합니다.

액티브 스킬: 특정 몬스터와 최대 호감도 달성 시 몬스터의 요구에 따라 펫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전부 읽은 나는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와…나 대체 무슨 스킬을 얻은 거야?’

이런 류의 게임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개사기 스킬이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시작부터 SS급 스킬이라니, 거의 버그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별똥별님!!’

뜻밖에도 행운을 가져다 준 별똥별  
님에게 감사하며….

나는 위든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  
을 옮겼다.

“저 왔습니다. 위든 교관님!”

“으음? 자네는… 설마 슬라임 점  
액을 벌써 다 모아 온 겐가?”

“예! 여깁니다.”

나는 인벤토리에 있는 슬라임 점  
액을 꺼내 위든에게 건넸다.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보상: [초보자용] 가죽 갑옷, 500  
골드를 획득하였습니다.]

“허허! 벌써 퀘스트를 완료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만! 지금까지 이토록  
빨리 깬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라  
네!”

“…음? 그런데 자네, 이상하군! 이  
퀘스트를 깨는 동안 어째서 한 번  
도 레벨업을 하지 못한 거지?”

확실히 지금 나의 레벨은 1레벨.

‘그야 슬라임을 한 마리도 안 잡았으니까.’

이럴 땐,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좋겠지.

나는 워든에게 몬스터를 죽이지 않고도 점액을 얻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

“그렇군… 역시!”

내 말을 전부 들은 위든은 무언가 깨달은 듯, 사뭇 진지해진 얼굴로 다시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자네는… 내가 찾던 사람인 것 같군.”

응? 이걸 또 뭘 소리래.

“네? 그게 무슨…”

그리고, 새로운 눈앞에 퀘스트 창이 떠올랐다.

[히든 전직 퀘스트: 흥포한 늑대들의 숲에 잡혀있는 에리즈의 양을 구하라!]

등급: ???

보상: [성령술사로 전직]

기한: 3일

실패 시 페널티: 에리즈(Arise)의 분노.

설명: 첫 번째 퀘스트에서 아무런 희생 없이 퀘스트를 클리어한 당신, 양자리의 성령, 에리즈(Arise)의 영혼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집니

다. 그녀가 아끼는 양을 늑대 소굴에서 구해주세요!

※퀘스트 수락 시 다른 퀘스트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히든… 전직 퀘스트?’

에리즈(Arise)라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초보자 마을의 이름이잖아?

“몬스터를 죽이지 않고 이 첫 번째 퀘스트를 깬 자에게만 주어지는 전직 퀘스트라네. 에리즈 님께서

내게 특별히 부탁하셨지.”

“물론, 매우 어려운 퀘스트지만…  
왠지 자네라면 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

‘몬스터도 모자라 이제는 이 세계  
의 신이나 마찬가지로 존재가 나한  
테 관심을 가진다고…?’

폐널티고 자시고 일단 수락!

“꼭 성공해보겠습니다.”

“좋군! 여기 흥포한 늑대 소굴 지

도라네.”

위든은 지도를 건네주며 나에게  
당부했다.

“양을 찾게 되면 꼭 마을까지 무  
사히 데려와야 한다네!”

[흥포한 늑대 소굴 지도를 획득하  
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퀘스트를  
수락한 것까진 좋았다.

삐삐…….

[대여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강제  
종료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벌써…?

[플레이어 ‘관종’님 로그아웃합니  
다.]

그리고 보니 슬라임을 다시 소환

해 주질 못한 것 같은데… 돌아가  
면 꼭 이름부터 지어줘야지.

\*\*\*

그날 밤, 나는 꿈을 꿔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꿈을.

‘……여긴 어디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확인하기  
위해 두 팔을 휘적거렸다.

그때, 무언가 손에 닿았다.

물컹.

‘물컹…?’

시야가 점점 밝아지고 나는 그제  
서야 내 앞에 있던 생명체를 두 눈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대체 뭘 만진…?’

큐우~!

그것은….

‘으….’

큐우우?

‘으아악!!’

집채만 한 크기의 슬라임이었다.

삐리리리 -

“……허억!!”

‘뭐 이런 개꿈이….’

나는 식은땀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부터 묘하게 불길하네….’

영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나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에 있는 시리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생각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야 하니….’

오늘 안에 결판을 짓는다!

굳은 결심을 한 나는 이른 아침부터 집 근처에 있는 가상현실게임 대여 룸에 들어가 ‘스텔라 유니온’에 접속했다.

\*\*\*

위이이잉…….

[플레이어 관종 님 환영합니다.]

“후….”

어제보단 한결 익숙한 감각에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 이제 전직퀘 깨러 가보실까.”

…근데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 맞다.

‘펫 소환!’

동시에 눈 부신 빛과 함께 어제의  
슬라임이 내 앞으로 튀어나왔다.

큐큐!

(왜 이제야 꺼내주는 거냐, 인간!)

슬라임은 자신을 늦게 소환해 준  
것이 서운했는지 몸에서 열기를 뿜  
어대며 내게 시위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귀엽다.

‘역시 슬라임은 작아야 귀여워…  
근데 뭔가 어제보다 조금 커진 것  
같은데….’

나는 순간 아침의 악몽을 떠올리  
곤 흠칫, 몸을 떨었다.

‘으….’

“기분 탓이겠지, 그나저나 이름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

큐우?

(이름? 이름을 지어주는 것인가!)

“물론이지, 명색이 펫인데… 계속 슬라임! 이라고 부를 순 없잖아?”

큐큐우!

내 말을 들은 슬라임은 신이 났는지 폴짝폴짝 뛰어댔다.

“크크, 좋아하긴, 어디 보자, 음… 청포도같이 생겼으니까….”

포도 하면 떠오르는 포도계의 왕.

‘이제는 맛보기도 힘든….’

“샤인이 좋겠다.”

[펫에게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한번 결정 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인.”

이름을 정하고 나니 녀석의 머리  
위에는 내가 지어준 이름이 새롭게

떠올랐다.

[샤인]

큐큐!! 큐우!!

(고맙다 인간!)

큐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라!)

[10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소환  
이 해제됩니다.]

샤인은 기세등등한 몸짓과 함께  
아공간으로 사라졌다.

하하… 슬라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긴 하려나….

어쨌거나.

“이름도 지어줬겠다 본격적으로  
퀘스트 깨러 가보실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큰 문제가 있었다.

“음, 자신 있게 외치면서 일단 수

락하긴 했는데….”

“나… 아직 레벨 1이잖아.”

그렇다. 보통의 유저들은 첫 번째 퀘스트를 깬 때 슬라임들을 잡으며 레벨 업을 한다.

평균 3~5레벨 정도.

하지만 슬라임을 한 마리도 잡지 않고 퀘스트를 클리어한 나는 여전히 1레벨이었다.

‘아니… 보통 퀘스트 클리어하면 경험치 주지 않나?’

나는 어제 완료한 퀘스트 보상을 다시 확인해보기 위해 퀘스트 창을 열었다.

[보상: [초보자용] 가죽 갑옷, 5000골드]

에라이.

역시나, 골드와 초반용 아이템 뿐... 경험치는 사냥으로만 얻을 수 있는 듯했다.

위든지 설명해준 흉포한 늑대는  
일반 늑대들보다 훨씬 크고 포악하  
댔지….

당장 나와 일반 늑대조차 최소 15  
레벨 이상의 레벨 차이가 나는데….

‘진짜 어떻게 깨라고…?’

게다나 나의 초기 스탯은 최악이  
나 다름없는 상태.

나는 내 정보창을 열어 스탯을 확  
인했다.

[정보창]

플레이어: 관종

레벨: 1

직업: 없음

스탯: [힘:6+(1)] [민첩:4] [체력:6+(1)] [마력:5]

장착 중인 장비: [초보자용] 가죽 갑옷 / [초보자용] 목검

스킬: [몬스터 친화력 Lv1]

“와… 다시 봐도 구린걸.”

‘몬스터 친화력’ 스킬마저 없었으

면 정말 어쩔 뻔했냐….’

이쯤 되니 걱정되기 시작했다.

퀘스트 실패 시 페널티가….

[에리즈(Arise)의 분노].

그게 뭘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척 위험한 페널티란 건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없다.’

두려웠지만 지금 당장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늑대 사냥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 #003화

입구 근처에서는 이미 많은 유저들이 서로 함께 사냥터에 들어갈 파티를 구하고 있었다.

“빠르게 한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그냥 유저들도 파티를 꾸려서 가는 곳을 나 혼자 어떻게 가란 거야….’

아니지, 나 혼자 가란 규칙은 없었잖아?

‘나도… 파티를 구하면 돼!’

나는 어찌면 퀘스트를 쉽게 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들뜨기 시작했다.

“파티 구해요! 아무나 한 분 구합니다!”

“검 잘 쓰시는 분 우대합니다! 빨리 오세요!”

하지만….

“응? 뭐야 이 관종은, 컨셉질하지 말고 저리가쇼.”

꽝,

“어머, 죄송한데 저희가 이미 자

리가 다 차서요….”

꽝 꽝,

“정~말 죄송하지만…….”

“아, 예.”

꽝 꽝 꽝!

아… 어디 닉네임 변경권 안 파  
나…….

나는 파티를 구하는 무리에 다가  
가는 족족 칼같이 거절당했다.

‘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갑자기 세상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휴.’

아니, 이 퀘스트만 성공해서 히든 직업으로 전직하게 되면 인생 역전, 나도 양 팀장님처럼 퇴사하는 거야!

‘...좋아 힘을 내자.’

기운을 차린 뒤 주변을 둘러보던 나는 남은 사람들 중, 가장 친절해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저기... 혹시 파티원 구하시나요?”

멋지게 아이템을 갖춰 입은 남자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이었다.

‘와… 진짜 잘생겼다.’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이 남자… 굉장한 미남이었다.

‘금색 눈동자와 은발의 조화라니, 완전 천사 같은 외모네.’

남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친절  
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네! 지금 딱 한 자리 남아있

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긍정적인 반응!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혹시 저같은 뉴비도 들어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지금 파티 걸게요.”

이렇게 쉽게 허락해주다니…?

“닉네임이… 관종 님? 하하, 닉네

임이 특이하시네요.”

매번 설명하는 것도 지치지만….

나는 남자를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절대 컨셉이나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어찌다….”

“별 상관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아, 방금 파티 초대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듯하였다.

천사다.

이 사람은 천사야…!

“정말 감사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제 닉네임은 보시다시피 ‘수지’라고 합니다.”

퍼뜩,

남자의 친절함에 정신이 팔려 눈에 보이는게 없던 나는 그제서야 그의 닉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지?’

‘…전혀 안 어울리는 이름이네,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게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떠올리다 실수로 결정됐나 보군….’

그에게 갑작스레 동질감을 느낀 나는 측은한 눈빛으로 수지 씨를 쳐다보았다.

그때 멀리서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파티원 구했어?”

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보니,

척 보기에도 깐깐해 보이는 여성  
유저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응? 닉네임이… 강민? 헉, 이분  
도 우리랑 비슷한….’

그리고 그들에게 들은 측은지심은  
단 1분 만에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자기 왔구나? 안 그래도 방금 막  
구했어.”

…자기?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그래? 역시 우리 자기야.”

이런 우라질.

가까이 다가온 여자는 나를 쓱 살  
펴보더니 말했다.

“뭐야? 딱 봐도 장비도 제대로 못  
갖춘 뉴비잖아. 게다가 닉네임이…  
관종?”

뉴비는 맞지만, 관종은 아닌데  
요….

설마, 이제 와서 퇴출당하는 건 아니겠지….

나는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써 웃어 보이며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강민 님! 저는…”

“아, 인사는 됐어요. 저도 뭐 별 상관 안 할 테니까, 사냥터에서 방해만 하지 마세요.”

… 바로 찢려버렸다.

그때 수지 씨가 나와 강민의 사이를 중재하듯 가운데에 끼어들며 말했다.

“하하, 죄송해요. 관종 님. 저희 수지가 낮을 좀 가려서요.”

응…?

수지는 당신인데요?

아, 설마.

“어, 혹시 ‘수지’라는 닉네임은….”

“제 이름인데요?”

“여기 제 여자 친구 이름입니다.

하하.”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오… 주님…….

왜 하필 들어와도 커플들 파티에  
저를 이끄셨나이까….

“아 그럼 ‘수지’님 본명이 강  
민…?”

“네. 맞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  
했다.

그러니까, ‘수지’ 님이 강민 님이  
고, ‘강민’ 님이 수지…?

그때, ‘수지’… 아니, 강민 님이  
나에게 말했다.

“음… 아무래도 그냥 본명으로 부  
르시는 게 편하실 것 같네요. 강민  
이라고 불러 주세요.”

헉, 나도 본명으로!

“아, 그, 저는 민우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민우님!”

그의 뒤에서 또다시 흐릿하게 후광이 비춰 보였다.

‘정말 천사이신 게 아닐까….’

감상에 빠진 것도 잠시, 곧바로 뾰족한 수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성명도 했으면 슬슬 입장하죠?”

“넵.”

그래 커플이 대수냐, 원래 목적을  
떠올리자.

“자, 그럼 입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늑대 사냥터에 입  
구로 들어갔다.

\*\*\*

“거기 방어태세 제대로 갖춰!”

“으아악!”

사냥터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것은 다름아닌 사람들의 비명소리  
였다.

크르르...

날카로운 이빨과 한눈에 봐도 커  
다란 몸체.

‘흉포한 늑대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늑대는 늑대구나.’

초반 숲 늑대들의 레벨은 15레벨

정도.

‘여기에 입장하는 일반적인 유저들의 레벨 대는 대부분 13~16레벨 인걸 생각하면….’

늑대 한 마리를 상대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레벨 차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파티를 꾸려 이 사냥터에 입장하는 가장 큰 까닭은 바로, 늑대들이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충 한 무리당, 7마리 정도가 모여있는 편인가 보네.’

크르륵… 킁킁!!

입구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늑대들이 하나둘씩 다가오자 강민은 창을 들며 내게 말했다.

“민우 님, 저희 곁에 잘 붙어있으세요.”

비장한 목소리로 내게 당부한 강민은 유려한 창 솜씨로 다가오는

늑대들을 빠르게 처리해갔다.

그때, 강민의 뒤에서 늑대 두 마리가 동시에 강민을 향해 뛰어들었다.

크룩!

크와앙!!

“위험해요!”

나는 그에게 소리치며 서둘러 목검을 꺼내들었다.

순간, 곧바로 화살 두 발이 빠르

게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깨갱! 깡!

“방해 되니까, 양전히 있어요.”

까칠한 말투로 내 앞에 선 수지는  
활시위를 당기며 전투태세에 돌입  
했다.

피슌- 콧.

끼잉!

명중, 또 명중.

수지는 쏘는 족족 늑대들을 명중시키며 그를 서포트했다.

‘뭐야, 겁나 잘 싸우잖아? 이 사람들 대체 뭐야?’

강민은 맨 앞에서 여유롭게 늑대들을 쓸어버리며 나와 수지에게 말했다.

“역시 우리 자기야, 민우 님, 이대로 쪽 가봅시다!”

거침없이 나아가는 강민과 수지.

‘예쁘고 잘생겼는데 게임까지 잘 하는건 너무 사기 아니냐….’

잠시 현타가 왔지만, 아무튼 둘 덕분에 나는 아주 빠르고 안전하게 흥포한 늑대 서식지 근처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주변에 있던 늑대들을 전부 처리한 강민이 말했다.

“이 안쪽은 더 썬 몹들이 있는 것 같네요. 잠시 쉬었다 가죠!”

…물론 그 험난한 싸움 도중, 나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지만.

‘음… 버스 탈 생각으로 들어온 거긴 하지만 나 정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네.’

그래….

‘나 같은 레벨 1짜리가 할 수 있

는거라곤….’

사실, 이 사냥터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곧바로 한 가지 실험을 해보  
았다.

바로 늑대들에게 ‘몬스터 친화력’  
을 사용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것.

하지만 시도하는 족족….

[스킬 레벨이 낮아 해당 몬스터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스  
킬 레벨을 올린 후 다시 시도하여  
주십시오.]

레벨이 낮은 슬라임의 언어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역시 늑대와는 레벨 차가 심해서일까.

‘그나마 믿었던 스킬마저 안 통할 줄이야….’

스킬 레벨을 올리는 방법? 알 턱이 없었다.

지금의 나는 그야말로 무능. 그 자체.

“하아….”

나도 모르게 나온 한숨이 그에게 들렸나 보다.

“음? 왜 그러세요. 민우 님?”

“아, 아뇨. 별거 아닙니다. 그나저나 두 분, 굉장하시던데요?”

도저히 10레벨 대의 유저라고 볼 수 없는 침착함과 노련한 전투 실력, 나는 그들에게 순수히 감탄했다.

내 말을 들은 수지가 말했다.

“이정도야 간단해. 그나저나 뉴비, 레벨에 맞지도 않는 사냥터에 파티까지 구해가며 들어온 걸 보면 뭔가 히든 퀘스트라도 얻었나 보지?”

“헉, 정말인가요? 민우 님?”

예리한 질문이었다.

‘이 사람들한테 퀘스트 내용을 알려줘도 괜찮을까?’

지금까지 지켜봐 온 그들의 모습은….

‘솔직히 나 같은 뉴비를 파티에 끼워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착한 사람들 같긴 해.’

그리고 지금으로선, 둘에게 도움을 얻어야만 퀘스트를 깰까 말까한 상황.

나는 둘에게 퀘스트 내용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사실 첫 번째 퀘스트를 깨자마자

위든 교관에게 히든 퀘스트를 받았  
거든요.”

수지가 놀라 반문했다.

“뭐? 대체 뭘 했길래 튜토리얼 퀘  
스트 하나 깨자마자 히든 퀘스트를  
얻은 거야? 게다가 그 성격 구리기  
로 유명한 위든한테?”

위든 님… 분명 나한테는 친절하  
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그냥, 어찌다… 하하하.”

이건 일단 얼버무리자.

“다 말해주진 않겠다 이거군, 그래서 퀘스트 내용이 뭔데?”

“흥포한 늑대 숲 어딘가에 갇혀있는 양을 찾아오라고…”

“이제 고작 3레벨 언저리일 것 같은 당신한테 그런 퀘스트를 줬다고?”

수지는 퀘스트 내용을 듣더니 곧바로 내게 말했다.

“너 혼자서는 절대 못 깨.”

네... 잘 압니다.

“제 말이요... 히든 퀘스트라 깨기 전엔 다음 튜토리얼도 못 하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파티라도 구하려 했는데 정말 아무도...”

아, 다시 떠올리려니 가슴이 아파

온다….

수많은 유저들의 경멸 어린 시선  
과 거절들.

“두 분과 파티를 맺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강민  
님….”

내 말을 쪽 듣고 있던 강민은 애  
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민우 님… 굉장히 힘든 길을 걷  
고 계셨군요…! 여기까지 왔으니,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천사이신 게 확실하다.

감동에 빠져있던 것도 잠시, 수지가 팩트를 꽃아왔다.

“하여간 자기는 착해도 너무 착해, 그리고 애초에 닉네임 '관종'에 입고 있는 장비도 초보자용인 그쪽을 파티에 넣어 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하하….”

‘다 맞는 말이라 뭐라 할 말이 없네….’

강민이 눈을 빛내며 내 손을 잡았다.

“꼭, 함께 클리어합시다!”

“뭐, 우리 퀘스트 깨는 김에 조금 도와주지 뭐.”

“강민 님… 수지 님…!”

그래, 지금 나한테 이렇게나 든든한 파티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든 해보는 거야.

나와 강민, 수지는 휴식을 마치고

목적지인 흥포한 늑대 소굴로 천천히 전진해갔다.

크룩….

그때, 처음으로 흥포한 늑대 한 마리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미친, 일반 늑대보다 2배는 크잖아….’

위든의 말 그대로 흥포한 늑대는 엄청난 덩치와 붉은빛 털을 가진

사나워 보이는 늑대였다.

흥포한 늑대를 마주한 강민이 짧게 소감을 내뱉었다.

“와…어마어마한 크기네요, 다행히 무리로 다니지는 않나 본데요?”

“자기, 정신 똑바로 차려.”

“응.”

곧바로 둘은 아까보다 더 화려한 솜씨로 흥포한 늑대를 해치웠다.

콧, 피숙.

“휴, 조금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할만 한데요?”

‘일반 늑대는 그렇다 쳐도 흉포한 늑대를 이리 쉽게 해치워버리다니….’

걱정과 달리 둘의 실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대로 쪽 간다면!’

그때였다.

갑작스럽게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  
더니….

“きゃ! 이게 대체 뭐야?!”

“갑자기 땅이…!”

뭐야, 뭔데! 왜 갑자기 지진이  
아…!

“강민 님! 수지 님!!”

나는 다급하게 돌을 불렀다.

“민우 님!!”

멀어져가는 강민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나는 절벽으로 떨어졌다.

“으아악!!”

쿵.

\*\*\*

“으으음...”

기절... 했었나.

정신을 차린 나는 곧바로 남은 생명력을 확인했다.

[생명력: 13/100]

‘와, 그대로 즉사할 뻔했잖아?’

나는 안도하며 서둘러 주위를 살폈다.

“여기는…?”

지도를 확인해보니 다행히도 양이  
갇혀있는 목적지와는 더 가까워져  
있었다.

하지만,

‘강민 님, 수지 님과는 아무래도…  
갈라져 버린 건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때, 점점 늑대의 소리가 가까워  
져 갔다.

크르르륵….

“X 됐다….”

흉포한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천천  
히 내게 다가왔다.

“이제 어찌지…!”

일촉즉발의 상황,  
문득, 나는 잊고 있던 그 녀석을  
떠올렸다.

……!

‘그리고 보니 나한테… 샤인이 있  
었지!’

이판사판이었다.

“샤인 소환!”

큐우?~

(불렀나, 인간!)

시동어를 외침과 동시에, 아공간  
에서 샤인이 튀어나왔다.

그런데…?

큐우웅~!

(이 몸, 성장했다!)

“뭐, 뭐야…? 갑자기 왜 이리 커  
진 거야?”

몇 시간 만에 다시 만난 샤인은

마치 꿈에서 본 집채만 한 슬라임  
과 비슷할 정도로 성장해있었다.